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영국 왕실 주최 세계 최고의 경마대회

20일 영국 왕실 소유 로열 에스코트 경마장에서 열린 왕실 주최 에스코트레이스 첫날 경주마들이 질주하고 있다. 로열 에스코트는 앤 여왕이 1711년 원자성 근처 에스코트 지방에서 연 경마대회에서 유래했으며 영국인들은 세계 최고의 경마대회라고 자부하고 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기된 사람들 입장할 수 있고 '로열 엔클로저'라고 불리는 결승선 앞 전망이 가장 좋은 좌석이 있는 구역은 왕실 가족과 초대손님만 앉는다. 엄격한 복장 규정에 따라 남성은 검은색, 회색 양복과 조끼에 모자를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하며 여성도 정장에 모자를 써야 한다.

AP=연합뉴스

■ 끝까지 '호랑이 굴' 속타는 서정환 감독



“내 운명은 ‘사람’ 아닌 ‘성적’에 달렸죠”

“조 코치가 없으면 끝까지 해도 안 풀릴까요?” 서정환 KIA 감독은 20일 '조범현의 코치의 차기 감독설'을 묻는 질문에 “그가 없다고 해서 팀 성적이 안 좋는데 안 풀리고, 그가 와서 성적이 좋는데도 풀리지 않아요”고 반문했다.

서 감독은 “솔직히 지난해말부터 그의 영입을 생각해왔다. 하지만 팀이 4강까지 진출했는데 한술밥을 먹고 있는 코치인데 길을 낼 수는 없었다”면서 “지난 17일 밤 서울 모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내가 먼저 함께 뛰어 보자고 제안했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서 감독은 “조 코치에게 '분명히 차기 감독설 등 각종 말들이 떠돌 것이다. 개의치 말고 언론도 자주

‘조범현 코치 차기 감독설’ 일축

“만약 구단서 후임 감독 구할땐

김응룡 사장 같은 거물급 될것”

접촉하고 편하게 지내라’고 했다”며 “오히려 조 코치가 이같은 루머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 감독은 이어 “KIA는 대기업이다. 만약 후임 감독을 모색한다면, 예를들어 김응룡 삼성 사장 등 거물급이 될 것”이라면서 “SK감독에서 물러난 지 1년 밖에 안된 조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올리겠느냐”며 단호한 어조로 항간에 떠도는 차기 감독설을 일축했다.

서 감독은 또 “조 코치는 내가 과거 삼성 감독으로 있을 때 배터리 코치로 직접 영입했을 만큼 절친한 사이”라며 “그가 잘해주면 팀은 물론이고 내게도 좋은 것이다. 제발 이상한 시각으로 그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 투런포

일본 통산 100 홈런 1개 남아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홈런을 앞에서 모처럼 화려한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일본 통산 100홈런에 1개만을 남겼다.

이승엽은 20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와 인터리그 홈경기에서 1루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장, 1-3으로 따라 붙은 4회 2사 2루에서 롯데 선발 와타나베 슌스케로부터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시원한 동점 2점포를 작렬시켰다.

13일 오릭스전 이후 1주일 만에 홈런포를 가동한 이승엽은 시즌 14호 및 일본 통산 99호로 2004년 일본 땅을 밟은 후 4시즌 만에 100호 돌파를 눈앞에 뒀다. 4번을 절친한 친구 아베 신노스케에게 내주고 6번으로 강등된 설움을 날려 버린 후련한 한 방이었다. 2회 첫 타석에서 좌익수 뜰공으로 물러난 이승엽은 4회 와타나베와 두 번째 대결에서 볼 카운트 1-3에서 들어온 복판 높은 직구(119km)를 놓치지 않고 잡아 당겨 동점 투런 아치를 그렸다.

‘군기반장’ 장성호

두발 단정 등 정신무장 지시

“농군패션으로 정신통일해!” 침몰위기에 놓인 'KIA호'의 새로운 주장 완장을 찬 장성호(30)가 선수단의 군기잡기에 나섰다. 장성호는 지난 19일 2군으로 내려간 이종범(37)으로부터 주장자리를 물려받았다. 이종범의 장기 집권을 마감하고 젊은 주장으로 세대교체가 된 것이다.

주장이 된 장성호는 지난 19일 경기 후 선수들을 집합시켜 농군복장을 한가지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자신이 지금까지 고집해 온 스타킹을 무릎 아래까지 올려입는 '농군 패션'이 바로 그것.

또 장성호는 선수들의 머리 상태도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깔끔하게 자를 것을 요구했다.

20일 광주 한화전에서 KIA 선수들은 모두 농군패션으로 나왔고, 머리 스타일도 깔끔해 졌다. 우선 장성호 자신이 모범적으로 깔끔하게 머리 스타일을 다듬었고, 투수 정원은 군인 머리로 짧게 깎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차기 감독설 속 부담한 조범현 코치



“보직은 무의미... 후배들 조련에 만족”

“신인들 많아 실수 잦은 듯

선수·코치들 융화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성적 가능할 것”

“직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후배들을 조련하는데 만족할 뿐이다.”

한달여동안 '꼴찌'를 맴돌고 있는 'KIA호'에 조범현 전 SK 감독(47)이 1군 배터리 코치로 합류했다. 조 코치는 20일 연봉 1억원에 계약한 뒤 한국야구위원회에 코치 등록을 마쳤다.

조 코치는 쌍방울과 삼성에서 포수 조련과 투수 리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얻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SK에서 지휘봉을 잡았다.

조 코치는 지난 1982년부터 92년까지 OB와 삼성에서 활약했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배터리코치로 나서 쌍방울에선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포수로 평가되는 박경완(SK)을 길러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삼성의 배터리코치로 활약하며 진갑용(삼성)이란 명포수를 조련했다.

이런 조 코치의 영입과 지난 18일 단행된 1, 2군 코칭스태프의 보직 변경은 좀처럼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KIA의 최근의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일 조범현 코치를 광주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만났다.

-KIA 구단으로 합류한 소감은.

▲한국시리즈를 9번이나 우승한 명문팀에 들어오게 돼 너무 기쁘다. 특히 함께 일하고자 재외한 서정

환 감독에게 감사드린다.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김상훈 포수와 첫 훈련을 했는데 평가는.

▲그동안 너무 편하게 운동을 한 듯하다. 몸무게도 너무 많이 나간다. 4kg정도 빼야할 듯 싶다. 송구 밸런스도 무너진 상태로 이를 바로 잡는 게 급선무다.

-감독 출신으로 코치를 맡게 됐는데 고민은 없었나.

▲보직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다시 그라운드에서 후배들과 운동을 하게 돼 기쁘고 행복하다. 좋은 지도자로 남는 게 마지막 목표다.

-KIA의 현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어제(19)경기를 지켜보니 신인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지 실수가 자주 반복됐다. 또 코칭스태프도 새로 짜여져 아직은 융화가 잘 안되는 듯 하다. 이러한 문제점만 고쳐간다면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낼



KIA 신임 조범현 코치(왼쪽)가 포수 김상훈에게 포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mjna@kwangju.co.kr

수 있을 것으로 본다.

-KIA 코치가 됐는데 각오 한마디.

▲내 팀 한방을, 한방울이 팀 성적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 팀 성적이 안 좋은 상황에 선 코칭스태프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모든 선수단과 힘을 모아 올 시즌 KIA가 4강에 진출하는 데

조그마한 힘이나 보태고 싶다.

-주변에서 차기 감독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난 코치일 뿐이고, 서 감독이 나를 데려왔다. 이러한 루머들이 팀을 흔든다. 언론에서 부풀리기를 하지 말아달라.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